

‘책의 해’ 제정을 보며

李璟薰

보성사 대표

이미 우리는 20년전인 1972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세계도서의 해’를 이렇다할 성과 없이 무위로 끝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문화부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추진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을 ‘책의 해’로 선정하였다는 소식이 이미 이런 운동에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한차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는 ‘책의 해’가 되풀이 된다면 하는, 의구심과 반성이 앞서면서 어떤 긴장감마저 갖게 된다.

유네스코가 ‘세계도서의 해’를 설립한 배경은 그 요지가,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불란서 석학 에스카루베 교수로 하여금 「책의 혁명」이란 저서를 발간케 하였다.

그는 인구의 증가·교육의 보급·여가의 증대로 책의 시장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공급체계와 도서관 특히 학교·공공도서관의 확충은 책의 이용도를 증가시킨다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중요 관심 대목인, 라디오·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매체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여전히 책이 지니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모든 매스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책은 지식습득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도구임을 잘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온 20여년 전과 오늘을 비교할 때, 정보화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특히 우리와 같이 식민통치에서 풀려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국으로서의 순수하고 전통적인 책 문화의 힘을 국민 특히 청소년층이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한 사이에 유입된 저급 테크놀로지의 일방적 영향으로 신세대의 비인간화를 가속시켰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93년을 ‘책의 해’로 채택하고 총체적 문화의 좌표를 재정립하는 역할로서 책의 문화가 지닌 비중은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다. 올해는 이런 시기에 맞추어 지난 6월 「출판저널」 창간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책의 미래, 미래의 책’을 주제로 뉴미디어시대의 책과 문화사적 의의를 짚었고, 또 8월엔 크리스찬아카데미대학의 모임에서도 ‘미래의 출판인, 출판문화’를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미래의 책과 출판을 대상으로 잡았다고 보아진다.

특히 이번 ‘책의 해’에서는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책의 문화를 국가수준에서 종합계 획하는 차원의 ‘국가도서개발위원회’ 설치를 기어코 후계세대인 우리가 달성시켜야 할 것으로 믿는다. 신생국 특수사정 아래서, 국가수준의 강력한 출판진흥정책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책의 문화는 미시적 정책을 노출시켰으며 이로인해서 장르별 생산량의 불균형 및 내용의 저질화, 전근대적 유통체계, 저작권인식 부족, 독서교육방치 등의 실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출판이 제구실을 못한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출판계를 비롯한 범 문화의 생산자는 이 기구의 필요성을 숙고하여 우리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감히 바란다.

이 기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특히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소홀히 여기는 오류, 즉 각급학교도서관의 전국적 황폐화 현상을 선차적으로 시정할 것과, 또 행정부 중앙부서를 필두로 모든 관공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속 전문도서관을, 그리고 각 기업체도 의무적으로 종업원수에 비례한 일정 기준의 도서실을 설치하도록 입법조치할 것을 요망한다. 이 방법은 국가가 문화적 지적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를 실시하므로써, 요즘 여론정가에서 제기된 ‘한국병’이라 말하는 증후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파렴치한 체질이 스스로 치유될 것이며, 책의 힘으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인간형은 이로써 이룩될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뉴스 2 “1993년은 책의 해”·외

표지인물 4 자료의 광맥 찾는 우리문학의 고고학
「한국고전문학신자료연구」번 박요순교수

에세이 6 영원히 우리의 삶을 설레이게 하는 것들 —곽재구
역마, 여행, 그리고 책들

뉴스의 인물 8 “출판문화발전 신기원 이를 계기”
‘책의 해’ 제정 준비위원장 윤형두씨

- 서평 9 이상우 외 「현대국제정치학」 — 김의곤
- 21세기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 김형국
- 10 한승현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 허희성
- 한준상 「한국교육의 민주화」 — 심성보
- 11 김종운 「현대미국소설론」 — 조성규
- 12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 김대행
- 이경호 「문학과 현실의 원근법」 — 한 기
- 13 최인석 「안에서 바깥까지」 — 최인자

리뷰 14 서점가에 상륙하는 중국 대륙풍
한중수교 계기로 본 중국관련도서 출판현황

출판화제 16 애호가 위한 영화책 다양하게 선보인다
가이드북서 감독론까지 최근들어 층위 두터워져

논문초 17 번역대중소설, 왜 문제삼아야 하는가
베스트셀러화현상 진지하게 비판한 두편의 논문

시론 18 서점문화론의 맹점과 잘못된 기대 —이중환
그 낭만적 인식과 현실의 괴리를 생각한다

현장취재 20 “예전같진 않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다”
‘책의 메카’ 옛명성 퇴색하는 대학천 서적도매상

21 절망적 현실에 앞날까지 불투명
이제는 향수로만 남아있는 활판인쇄의 현주소

- 이 책 그 사람 22 「기상학사전」 펴낸 김광식씨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번 박삼중소님
- 23 「길은 마음에 닿는다」번 김완하씨
「시인의 죽음」번역한 유병례교수

특별기고 24 한 조선청년의 일본출판계 종횡기 — 최덕교
김형찬 지음 「조선인이 본 전전기일본출판계」를 읽고 (상)

해외출판 26 일본의 출판인쇄 콤비나트 구상·외 —이봉호

- 세계의 책 28 「문화는 과연 경제를 이끄는가」·외 —배병삼
- 30 화제의 신간
- 32 신간안내
- 40 200자 안내
- 42 신간목록
-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